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2021 세대평등포럼 (Generation Equality Forum) 개최와 향후 글로벌 여성의제 이행 전략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I. 글의 배경

19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유엔 관계자, 각국 정부 대표, 민간단체 대표 등 약 5만여 명이 참석하여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12개 분야(여성과 빈곤, 교육, 건강, 폭력, 전쟁, 경제, 권력, 제도적 장치,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의 인권) 361개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마무리되었다.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을 맞는 해로 유엔여성기구는 오늘날 완전한 평등을 달성한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난 시대의 발전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 세대가 함께 논의한다는 취지로 세대평등포럼을 기획하였다. 나아가, 유엔여성기구는 1975년에 최초로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한 멕시코와 국내외적으로 성평등 정책에 적극적인 프랑스를 포럼의 공동의장국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포럼은 젠더기반폭력, 경제정의 및 권리, 자기 몸 결정권 및 생·재생산 건강 및 권리, 기후정의를 위한 여성주의 활동, 성평등을 위한 기술혁신, 여성주의 운동과 여성 리더십, 여성·평화·안보와 같은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민간 기업을 아우르는 행동연합(Action Coalitions)을 구성하였다. 행동연합은 향후 성평등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분야별 주요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대평등포럼은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7월에서 2021년 6월로 개최가 1년 연기되었다. 세대평등포럼을 5개월 앞둔 앞두고 지난 1월 13일 텔핀오 세대평등포럼 사무총장과 벤자맹 베샤즈 세대평등포럼 사무부총장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담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지소 부연구위원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간담회에는 본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진 이외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김영택 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본 원고는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사진 1] 델핀 오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참여자

## 2. 간담회 내용

Q  세대평등포럼의 탄생 배경과 구성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델핀 오  본 포럼은 기본적으로 유엔여성기구와 멕시코 정부, 프랑스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북경여성대회 25주년 기념 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한 선언문과 12개 분야 행동계획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하거나 쟁점을 제기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여성대회에서 합의한 주된 목표들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북경행동계획의 큰 골격을 유지하되 최근 새롭게 등장한 쟁점들, 예를 들어, 젠더와 기후변화, 여성과 기술혁신, 온라인 폭력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는 공동 의장국인 멕시코 및 유엔여성기구와 함께 일곱 개의 관심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여섯 가지 관심분야는 젠더기반폭력, 경제 정의 및 권리, 자기 몸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기후 정의를 위한 여성주의 활동, 성평등을 위한 기술혁신, 여성주의 운동과 여성 리더십입니다. 이 여섯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NGO, 국제기구, 그리고 재단이 연합하여 해당 관심 분야를 위해 공동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행동 연합이라 불리는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여성·평화·안보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일곱 번째 관심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일곱 개 모든 분야에 있어 합의문 도출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을 가이드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각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파악하고, 향후 5년 안에 성평등 달성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은 물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여 북경여성대회 당시 가지고 있던 계획과 현재의 간극을 좁히고자 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세계여성대회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공식 포럼 명칭은 ‘세대평등포럼’인데, 사실 내용의 많은 부분이 ‘젠더 평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이 ‘젠더평등포럼’이 아닌 ‘세대평등포럼’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델핀 오** 포럼의 명칭은 북경여성대회 25주년을 맞아 유엔여성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대 평등 캠페인과 연계하여 세대평등포럼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북경여성대회의 전통을 이어 성평등을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대를 위한 평등, 인류의 세대 평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Q** 2020년에 개최 예정이던 포럼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년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국제 이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만, 포럼 준비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델핀 오**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평등포럼은 북경여성대회 25주년을 기념하여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되어 먼저 2021년 3월 29-31일 멕시코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 번 더 개최될 예정인데, 파리의 포럼은 대면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파리 포럼 날짜는 여전히 미정입니다만, 파리에서 최소 1일간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국제 이동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진다면 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면

회의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3일간 온라인 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문가 좌담회, TED 토크, 워크숍 등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올 6월 파리의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사실, 2020년 포럼을 기획할 당시에는 세계 각국에서 8,000명 정도의 참석자가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물리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를 만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현지에서 대면 행사를 개최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Q** 정부 혹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세대평등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델핀 오** 먼저 참여하는 주체가 정부 혹은 민간 단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는 획기적인 차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구체적인 재정 자원의 확보는 물론이고, 적어도 향후 5년 동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행 계획을 제시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각 이해관계자마다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개별 국가의 정부라면 일곱 개의 관심 분야 중 젠더기반폭력, 경제정의 및 권리, 여성·평화·안보 등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관련 행동연합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민사회 역시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6월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행사는 전 세계 관계자들이 서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단순히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차원보다는,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기타 지역의 관계자들과 성평등한 미래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벤자맹 베사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행동 연합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젠더기반폭력이 주된 관심 분야라고 가정했을 때, 기관 차원에서 해당 분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제안해준다면, 우리는 이를 세대평등포럼 행동연합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세대평등포럼은 분야별 행동연합보다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대평등포럼이

라는 논의의 장을 활용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다양한 국제 파트너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새로운 행동 방향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 포럼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델핀 오** ♣ 우리는 포럼이 소수의 여성정책 전문가와 여성운동가에 국한되어 논의되기 보다는 대중적인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청년 단체를 비롯하여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사들에게 세대평등포럼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단순히 전문가들 혹은 외교적인 관심사가 아닌, 대중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유명인들이 젠더기반폭력, 혹은 온라인 폭력(cyber harassment)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리에서 공식적으로 세대평등포럼이 개최되는 6월에 전세계 지역 사회에서 정부 혹은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움직임에 유엔여성기구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지지가 더해지면, 가시성을 높이고, 세대평등포럼이 전세계적 운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세대평등포럼은 유엔 정기총회와 같이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북경여성대회 이후 2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제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앞으로 25년 동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정부 안팎의 정책 결정자들이 집결하여 향후 성평등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국제적인 행사가 없음을 물론이고, 논의를 실질적인 행동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에서부터 페루의 원주민들, 말라위의 시골 여성들과 영향력 있는 북아메리카와 북유럽의 조직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본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세대평등포럼은 행동중심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포럼 종료 이후 어떠한 후속 조치가 있는지요?

**델핀 오** ♣ 유엔여성기구가 본 포럼의 주최자로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정부와 멕시코 정부도 공동의장국으로 이행 점검 과정에 계속 참여하겠지만, 유엔여성기구는 조직적으로 파트너들의 참여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평등포럼을 통해 향후 5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5년 후에 이행 점검을 논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속조치나 이행 점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없고, 논의 진행 추이를 살피며 결정할 것입니다.

**Q** 포럼의 주요 분야 중 하나가 자기 몸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로, 프랑스가 이 분야의 행동연합을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델핀 오**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포럼의 공동의장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프랑스의 1순위 의제입니다. 먼저, 프랑스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임신중절수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아르헨티나, 부르키나파소, 덴마크 등 해당 분야 행동연합에 소속된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부 조직으로는 IPPF(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와 같은 단체가 함께 행동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라는 국면을 맞이하여 보건 영역에 종사하는 전세계 여성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전선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의료진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보건기구 및 WGH(Women in Global Health)와 같은 국제 NGO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시작해, 궁극적으로 여성 의료진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 및 보상체계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Q** 세대평등포럼에 대해 사무총장님과 사무부총장님께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델핀 오** 파리에서 진행되는 회의가 전세계적으로 생중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공동의장국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주한 멕시코 대사관 역시 한국에서 6월에 세대평등포럼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비롯한 한국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포럼이 한국의 관계자들에게도 향후 성평등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2] 간담회 전경

■ 델핀 오(Delphine O)

- 세대평등포럼 사무총장(무임소 대사 겸직)
-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Ecole Normale Supérieure) 및 하버드 케네디스쿨(Harvard Kennedy School) 졸업
- 주한 프랑스 대사관, 뉴욕 프랑스 총영사관, 워싱턴 스티븐 센터(Sitmsom Center)에서 근무한 후 이란으로 이주하여 이란의 이미지 제고, 이란 투자자 유치 등을 목표로 하는 페르시아인 레터스(Persian Letters)라는 웹사이트를 공동설립 함.
- 프랑스 현직 대통령인 마크롱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La République en Marche) 당 소속으로 파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음.
- 프랑스 국회 외교위원회(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위원이자 프랑스 국민의회 내 프랑스-이란 우호 단체(the France-Iran Friendship Group)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2019 프랑스-미국 영리더(French-American Young Leader), 2019 뮌헨 영리더(Munich Young Leader), 유럽 외교 관계위원회(the European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위원, 독일 마셜 펀드 프랑스 전략 오리엔테이션 위원회(the Strategic Orientation Board of the German Marshall Fund France) 위원,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nstitut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Stratégiques)와 같은 각종 싱크탱크에서 이사로 활약하고 있음.

■ **벤자맹 베샤즈(Benjamin BECHAZ)**

- 세대평등포럼 사무부총장
- 씨양스 포 파리(Sciences Po Paris) 졸업
- 프랑스 외무부의 성평등 및 글로벌 보건 정책(Gender Equality and on Global Health) 고문으로 활약한 바 있으며, 프랑스 외무부에 소속되기 이전에 프랑스의 양자 협력기관인 엑스퍼티즈 프랑스(Expertise France)에서 거버넌스 프로그램과 유엔여성기구를 담당한 바 있음.